



◇지리산 생명평화결사 창립식이 11월 15일 실상사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1만여개의 생명평화등 점등장면.

온세상 평화의 등 밝혀지길...

'지리산 생명평화결사' 창립 1만여 등불 밝혀 행사 절정 1천개 평화마을 건설 방침

자연, 인간, 지역, 종교, 이념의 벽을 허물고 서로 끌어안는 '지리산 생명평화결사(이하 평화결사)'가 11월 15일 실상사에서 창립,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평화결사는 11월 15일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이 지리산에서 회생된 원혼들을 달래고 뭍살의 해원상생을 염원하며 시작한 1,000일 기도 회향과 함께 발족했다. 실상사 보광전 앞 경내에서 진행된 창립식에는 도법 스님을 비롯, 수경 스님, 김진웅 목사, 남영숙 목사,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 박노해 시인, 남지심 소설가 등 각계인사와 불자, 지역민 3백여 명이 참석했다.

풀어주는 생명방생으로 시작한 이날 창립식은 '생명평화의 등 점등'으로 실상사 경내에 1만여 개의 등이 밝혀지면서 절정을 이뤘다. 이날 창립식에서 도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만인이 밝힌 등불마냥 마음마다 평화의 불이 밝혀지기를 기원하며, 이웃에게 평화를 나누어주는 '생명평화 탁발순례'를 펼치겠다"고 선포했다. 생명평화 탁발은 다음달부터 도법 스님과 수경 스님이 단장이 되어 마을은 물론 사찰, 교회, 성당, 시민단체 등 전국각지를 돌며 직접 생명평화를 알릴 예정이다. 이번엔 창립한 평화결사는 개인별로 생명평화결사 서약을 한 '평화의 등불'과 이들이 3인 이상 모여 이른 '평화마을', '평화마을이 여러개 모인 '평화지대'로 조직되며 평화대회, 평화학교 등을 통해 교육과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화결사는 평화운동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회원 10만명을 목표로 생명평화서약운동을 전개하며 평화마을을 1천개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이준엽기자



천일기도 회향한 도법 스님

"이번 천일기도는 우리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종교계 시민사회 대중이 함께한 기도였습니다" 2001년 2월 16일부터 '죄우의희생자와 뭍살명해원상생을 위한 범종교계 100일기도'를 시작으로 1천일동안 매일 5시간씩 특별 정진기도를 불행한 도법스님이 지난 12일 천일기도를 회향했다.

매일 5시간씩 정진기도 생명평화 탁발순례 계획

"기도를 마치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한 도법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평화를 가꾸는 것만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평화를 위해 죽음도 같이하는 10만명의 평화대가 있다면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수경스님과 함께 평화를 '구걸'하는 생명평화의 탁발순례에 나설 계획이다.

청담스님 열반 32주기 추모법회



도선사(주지 혜자)와 청담문화재단(이사장 동광)은 11월 15일 호국참회원 대강당에서 청담대중사 열반 32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사진) 추모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조계종단이 중생구제의 큰 뜻을 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 청담대중사의 헌력을 이어받아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저희 제자들은 큰스님의 뜻을 받들고 계승하기 위해 오늘 다시 도선사에 모였다"며 도선사가 큰스님의 서원을 선양할 수 있는 정화의 성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수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선사와 청담문화재단은 이날 추모법회에서 중앙승가대 도선 석상 스님을 비롯 동국대, 진주산업대, 청담중·고 학생 54명에게 6천5백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도선사 회주 혜성,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중앙종회 의장 지하, 문수사 주지 혜정, 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청담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과 국회의원 김원길, 서울강북구 김원홍 구정장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선문화연구회 명상편의점 열어

서울 도심 한복판에 건강을 위한 명상 체험 공간이 마련돼 화제다. 선(仙)문화연구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에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명상을 즐길 수 있는 명상 편의점 '선(仙)'을 열었다. 편한 시간에 편의점을 찾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듯, 누구나 쉽게 방문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각종 명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이 표방하는 것은 '쉬운 명상'과 '웰빙(well-being) 명상' 두 가지. 걷기명상, 그림명상을 체험하면 명상지도자의 간단한 지도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선'의 이원(40) 대표는 "명상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며 "바쁜 현대인들이 잠깐의 휴식을 통해 나와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입장료는 4000원이며 방문객들에게는 연꽃차가 무료로 제공된다. (02)722-6653 강산재기자

장흥 정안사 공예태후 헌다식

KBS 인기드라마 '무인시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돈독한 불심을 보여주고 있는 공예태후의 헌공 다례식이 11월 7일 전남 장흥 정안사에서 개최됐다. 장흥군과 장흥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인등 지역문화재단은 공예태후 기부의 사상이었던 정안사와 소설가 이청준의 작품 '죽제'의 무대인 남포마을과 한승원의 작품 '아제 아제 바라아제'의 촬영지인 신흥사를 묶어 문화답사 코스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높아지는 탑, 쌓이는 불심

양평 범림정사 정용순 신도회장

경기도 양평읍 한천으로 접어들어 10여 개 돌탑이 그 위용을 드러낸다. '범림정사' 절 마당에 우뚝 선 채로 대웅보전을 감싸 안은 모양이 마인산 돌탑을 연상케 한다. 이 탑들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 절을 대표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신도들의 바람과 정성을 오롯이 녹일 수 있는 것으로 말이죠. 그러다 생각해 낸 것이 돌탑이죠."

당한 돌을 찾아 흥천까지 뛰어가 돌을 구해 오는 한편,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발을 담궈 가며 운반 작업을 맡이기도 했다. 몸은 고됐지만 정성을 담은 탑이 조금씩 높아질 때마다 환희심이 일었다. 크고 작은 돌이 서로의 틈을 메워가는 동안 부처님에 대한 정성 또한 깊어질 수 있었다. 정 씨의 불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돌탑쌓기 작업을 매개로 범림정사 신도회의 화합을 이끌어 냈다. 유명무실했던 신도회가 정씨의 활약 이후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씨는 범림정사 신도들의 애경사를 꼼꼼히 체크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얼마 전 경내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도가 죽을 위하는 결혼준비는 물론 이삿짐까지 손수 날라갈 정도. 떡방앗간을 운영하면서 꾸준한 떡보시를 실천해온 것 또한 정씨의 불사 가운데 하나다. 각종 절 행사도 열릴 때마다



◇자신이 쌓은 돌탑앞에선정용순신도회장.

돌탑의 기원을 공명해하자 범림정사 신도회장 정용순(52·지족) 씨가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돌탑이 채 정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범림정사와 인연을 맺게 된 정 씨. 주지스님의 법문이 좋아 사찰을 들락거리던 그는 2000년 돌탑쌓기 원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마인산 탑사의 돌탑에 반한 것도 이유라던 이유겠지만, 신도들 손으로 도랑을 가꿔가는 뜻을 높이 사서 '범림정사 돌탑만들기'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생각은 좋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적

그의 딱·과일 공양은 소리없이 진행했다. 이런 정 씨가 최근에는 대중전 중흥불사라는 큰 일을 세웠다. 절일을 제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은 불사를 위한 저금미라든지 이끌어 냈다. 큰 가업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부처님 모시는 성전다운 법당을 제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돌탑에 닿은 작은 정성과 진실한 마음이 새 법당에 새 피어오를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강산재 기자



추천의 말

성운스님 범림정사 주지 범림정사의 보배입니다. 절과 신도일이라면 열 일 제쳐두고 나서는 마음이 꼭 부처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

불국토 건설 몸소 실천

마음이 지역사찰에까지 뻗어 최근에는 양평사암연합회 행사 또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족 거사의 불심으리라 양평지족 불국토 건설도 그다 먼일이 아닐 듯합니다.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총회 개최

◆ 일시: 불기 2547년 11월 29일(토) 11시

◆ 장소: 흥도사 설법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33-250
전화: 02)2234-2198

위과 같이 공고함

불기 2547년 11월 18일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도암 성도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사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 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열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청령/의령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문경/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청령/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이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물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저장 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역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